



사진해설: 지난 3월 초 외국인 학생들의 기숙사 입소과정에서 기숙사 운동민 팀장이 내부 선별진료소에서 발열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예방을 위한 외국인학생 집중보호

현재 전주대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대책안, 총장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급 부서별 비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종합 정보 페이지를 구성했다.

방학 중엔 학교 내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휴관하고 각 건물은 출입을 통제했다.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학 내 상황을 운영하여 입국하는 학생들, 아직 입국하지 않은 학생들과 입국하는 시간 등의 정보를 연락해 주고받았다. 전주시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 학생들이 입국한 후 버스에 탑승하기 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체크를 철저히 했다. 중간에 경유지 없이 지정된 전주대학교 통학버스 2대를 통해 데려왔으며, 전주에 오기 전 버스 내

부에서는 간단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기숙사 입주 학생들은 스타누리에서 집중적으로 보호했고, 입주 전 내부 선별 진료소의 열화상 카메라와 검사를 통해 발열 체크를 했다. 또한, 위생상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안내하고 교육했으며, 도시락과 방역용품 등을 제공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룸 거주 유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지원실 유학생 대응 콜센터에서 1일 2회 연락과 자가 앱을 통해 발열과 기침 등의 특이사항과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식사와 휴식의 경우, 시청과 협의하여 배달서비스를 제공했다. 격리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주었다.

학생지원실 전재홍 실장은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외출할 때 위생수칙을 잘 지켜 아픈 사람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202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총장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총장

따뜻한 봄이 오듯, 미지의 부푼 꿈을 그리며 대학 생활을 기대하고 있을 여러분의 전주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을 직접 만나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축하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정부기관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온, 명실 공히 호남 최고의 기독교문사학입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에 걸맞게, 꿈을 만들고, 키우고,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도울 것입니다.

수퍼스타로 성장해 사회로 뻗어간 선배들처럼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의 미래 수퍼스타라는 자긍심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며,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와 소중한 꿈을 향하여 마음껏 도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성취, 성공을 위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와 소중한 꿈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앞날과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끝나고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지난 3월 2일 영상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입학식 총장님 인사말씀 영상의 내용을 편집한 글이다. 금년 입학식은 전국적인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교육부 권고에 의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전주대, 코로나19에 대응해 2,600여개 강좌 온라인으로 본격 개강

서버 다운 등 혼란 없이 교내 사이버캠퍼스, 실시간 수업 등으로 온라인 재택수업 전면 시행

전주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개강과 함께 2,682개의 전체 수업을 온라인 원격 강의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실제 등교 시작일을 4월 13일로 연기하고 3주간 재택수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대는 그동안 미뤄진 개강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수업 부실 우려에 대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교수들의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장소(동시 촬영 강의실, 스튜디오)와 기자재(삼각대, 마이크, 웹캠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상시로 운영하는 전담 지원창구를

마련하여 재택수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또,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한계인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수가 강의를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 외에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장려하고,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을 높였다.

학생들의 접속 집중과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전산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됐다. 웹서버를 기존 대비 2배로 증설하고, 온라인 강의 업로드를 위한 VOD 서버도 3배로 늘렸다. 또, 부하 발생을 막기 위해 강의 콘텐츠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방식과 순차순번부여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택수업이 시작된 23일부터 약 2,682개 강좌, 11,372명의 학생이 전주대 사이버캠퍼스 등을 통하여 원활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전주대 교무처 관계자는 "강의가 시작하기 2~3주 전부터 시스템을 확장하고, 운영 효율화 전략을 수립해 전면적인 온라인 강의에 대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원활한 재택수업을 가능하게 한 것 같다.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2주 차 이상의 재택수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며,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것에도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 희망 나눔 운동 동참

코로나19 대구지역에 구호물품 기부 '사랑나눔 실천'
코로나19 고등분담 위해 '착한 임대료 동참'



전주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전주대는 지난 12일부터 약 5일간에 걸쳐 '코로나19 대구지역 사랑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 사람의 기부가 다른 기부로 이어져 교직원으로부터 시작된 기부 캠페인은 재학생과 졸업생, 동현교회, 전주대학교회 등 지역 교회와 (주)전주제과 등 지역 상인에게까지 번졌다. 자발적인 참여로 단 며칠만에 1,100만 원 상당의 기부금과 기부물품이 모여들었다.

기부된 성금은 대구지역에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멸균장갑, 손소독제, 비타민, 음료, 간식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기부물품의 대부분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 지역 소상공인에게서 구매해 '사랑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 학생과 교직원, 지역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뜻을 모아 대구지역이 처한 어려움에 함께하려고 한다. 대구시민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가 전국 대학 최초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내 입주 상가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교내에 입주해 있는 수익상가 총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2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한다.

전주대 관계자는 "학교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 항목인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임대료 인하, 감염예방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10년연속 선정되어 3년간 약 80여억 원 지원받아

호남권 유일 '10년 연속'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주관기관 선정, 향후 3년간(20~22년) 약 80여억 원의 사업 규모

전주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0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과 공공, 민간기관 등이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 자금지원,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대는 지난해 16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10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멘토링, 지식재산 확보,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초기 창

업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춰, 지역특화분야 사업에 최적화된 전주대만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나 고급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포털사이트,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이뤄진다. 전주대는 3년 미만의 유망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창업공간,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흥 창업지원단장은 "10년 연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초기창업자를 발굴·검증하고, 지속가능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학과,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전주대 간호학과가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2월 22일에 진행된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주대 간호학과 응시생 62명 전원이 합격해, 제8회 졸업생 모두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취업을 확정했다.

전주대 간호학과는 2009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해오고 있다. 또한, 간호 실무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학 종합 시뮬레이션 시스템, OSCE 및 CPX 프로그램 운영, 간호학술제 등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주대 간호학과장 김현영 교수는 "국가고시 전원 합격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비학점 교육과정 등 질 높은 간호교육을 진행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실무능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86명 배출

전주대가 2020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중등특수교육과 19명을 비롯해 총 8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교별로는 중등특수교육과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교육과 11명, 한문교육과 7명, 과학교육과 7명, 수학교육과 7명, 국어교육과 8명, 영어교육과 2명 순이다. 상담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일반대학 교직과정(비사범계열 학과)에서도 21명이 합격했다.

특히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 김세연 졸업생이 전북지역 수석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전주대에서 2년 연속 특수(중등)과목 수석 합격자가 배출됐다.

김세연 합격자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론을 다지고, 1차 합격 이후 교수님, 선배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며 수업실연을 준비해온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 장애학생의 건강한 생활과 교육을 돕는 특수교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전주대 한문교육과 김고명 졸업생이 합격하면서 전주대 한문교육과 동문 3자매가 모두 한문교사가 되어, 한문교육자 집안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고명 졸업생의 첫째 언니 김여명(30) 졸업생은 전주대 한문교육과 09학번으로 2014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중학교에서 한문교사로 재직 중이며, 둘째 언니인 김소명(29) 졸업생도

전주대 한문교육과 10학번 출신으로 2016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전주시 서곡중학교 한문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고명 합격자는 "어머니와 언니들을 보며 한문을 공부하고 또, 한문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가족 모두가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한문과 한자를 교육하고 고전번역에도 힘쓰겠다.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한문교육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더불어 사제동행 특강, 수업실연 컨설팅,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예비 교사 아카데미 등 이론과 실무능력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61명, 2019년에는 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86명의 합격자를 내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범대학장 소현성 교수는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값진 결과를 내게 됐다. 앞으로도 교직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성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질 좋은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6년 연속 수업료 동결, 입학금 약 33% 인하

전주대가 1월 13일, 2020학년도 입학금을 33.3%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5학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수업료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대 올해 신입생 입학금은 34만 2천 원에서 33.3% 인하한 22만 8천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입학금 34만 2천 원에서 33.3%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인 등록금이 인

하되는 효과가 있다.

수업료는 신입생의 경우 학기당 인문계 302만 원, 이공계 394만 5천 원이며 모든 학년의 수업료도 지난해와 동결된 금액으로 확정했다.

전주대 권수태 기획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덜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입학금을 인하·수업료를 동결하게 됐다. 지역의 대표 사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조직개편, 김갑룡 교육부총장, 류두현 대외부총장 취임



2인 부총장 체제로 조직 개편, 행정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학교가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

지난 1월 30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부총장 이취임식을 했다.

전주대는 그동안 포괄적인 업무를 관할했던 1인 부총장 체제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2인 부총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양병선 부총장 이임, 김갑룡 교

육부총장과 류두현 대외부총장이 취임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2인 부총장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며, 김갑룡 교육부총장은 체계적인 학생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 부문을, 류두현 대외부총장은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 타 대학과의 협력, 정부 사업수주 등의 대외업무를 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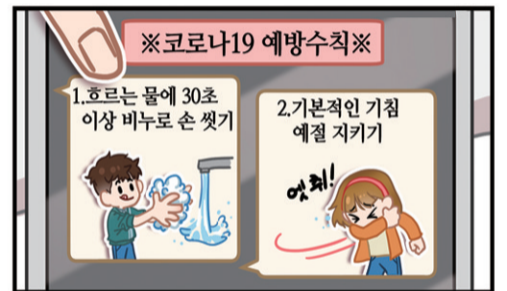
김갑룡 교육부총장은 “우리 대학 각 부처의 가치와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데 일조하고,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겠다.”라고 전했다.

류두현 대외부총장은 “교육부총장과 연계·협력을 통해 함께 학교가 흔들림 없이 균형감을 유지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임하는 김갑룡 교육부총장과 류두현 대외부총장은 각각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교무처장과 대학원장 등 학내 주요 행정 보직을 역임했으며, 학생 중심의 행정운영, 행정 전문성 강화, 연구·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학교의 역량을 높여왔다.

▶ 2, 3면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코로나19 예방수칙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020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황요한
Hwang Yo han

인문대학/영미언어문화학과

학력

- 서울신학대 영어 학사
- Pennsylvania 주립대 TESL 석사
- 조지아대 TESOL 박사

주요경력

- 건양대 시간강사 및 강의전문조교수
- 건양대 강의전담교수



허명륜
Heo Myoung Lyun

의과학대학/간호학과

학력

- 을지대 간호학 학사
- 을지대 간호학 석사
- 을지대 간호학 박사

주요경력

- 을지병원 간호사
- 전주대 시간강사
- 군산간호대 조교수



박지수
Park Ji su

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

학력

- 방통대 이학 학사
- 방통대 이학 석사
- 고려대 이학 박사

주요경력

- 고려대 연구교수
- 경기대 조교수
- 동국대 연구교수



성승택
Sung Seung taek

문화융합대학/영화방송학과

학력

- 강남대 미술학 학사
- 한예중 영화학 석사

주요경력

- 한예중 시간강사
- 장편상업영화 14편, 광고 공연영상 60여 편 촬영 감독



최소담
Choi So dam

사범대학/영어교육과

학력

- 고려대 영문학 학사
- 고려대 영문학 석사
- 뉴욕주립대(버팔로) 영문학 박사

주요경력

- 고려대 연구교수
- 고려대 시간강사
- 고려대 초빙교수



이재민
LEE Jae Min

미래융합대학/창업경영금융학과

학력

- 연세대 경제학 학사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연세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전주대 시간강사
- 웅지세무대학교(파주) 부교수



김병오
Kim Byung Oh

미래융합대학/문화융합콘텐츠학과

학력

- 서울대 국사학 학사
- 한예중 음악학 석사
- 전북대 무형유산정보학 박사

주요경력

- 전주대 문화산업연구소 연구교수
- 전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전주대 객원교수



이준우
Lee Joon Woo

미래융합대학/농생명ICT학과

학력

- 서울대 농학 학사
- 서울대 농학 석사
- 서울대 농학 박사

주요경력

- 고려대 연구교수

사령

편집장 안혜란(일본언어문화 18)

위 사람을 그 상기직을 면함.
이상 2월 29일

편집장 김지은(법학 17)

- 정기자 이수용(패션산업 19)
- 임정훈(영미언어문화 19)
- 정령(환경생명과학 19)
- 한강훈(일본언어문화 14)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리스크 관리



▲남기창 교수 (경명대학 경영학과)

장기화할 경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과 세계 가치사슬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마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가치사슬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지면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시각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두 국가에서 상징성이 높은 각각 6%, 2%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코로나19 사태로 평소 같으면 봄벼야 할 거리는 불안감에 바깥활동을 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에 한산하다. 그 여파로 주변 식당 등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외식업 전반, 특히 소상공인이 다수인 소형 식당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3.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리스크 관리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사전에 리스크 관리절차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Risk Identification)·분석(Risk Analysis) 그리고 평가(Evaluation)를 거쳐 대처방안(Risk Financing, Risk Control)을 강구해 놓는다면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 혹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종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절차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리스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확실성(Certainty), 불확실성(Uncertainty) 그리고 무지(Ignorance)의 4개의 개념을 구분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절차(Risk Management Process)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리스크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 및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가정을 포함)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Brain Storming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Risk

Analysis)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리스크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의 크기를 파악하는 절차로, 이는 기대치와 분산을 통해 기대치로부터의 편차의 크기를 파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만 수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커다란 편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특정 리스크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편차 발생을 예측,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리스크가 개인 혹은 조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평가(Risk Evaluation)하는 단계이다. 리스크의 평가에 따른 발생 가능한 손실의 빈도 혹은 규모에 따라 개인 혹은 조직의 대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로서 각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처방안이 선정되어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Risk Avoidance)할지 혹은 보유(Retention)할지 혹은 전가(Transfer)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대응수단으로서 최상의 수단이겠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로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또는 전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스스로 이러한 리스크를 보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우도 회피할 수도 전가할 수도 없다면 우리 사회가 스스로 보유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목표와 결과를 가지고 전 과정을 피드백하는 것이다.

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효율적인 대비방법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대규모 팬데믹 상황의 전염병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활한 소통체계(communication)를 통한 정보교환 및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공조가 필요하다.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엔 통합 리스크 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사회·경제·정치·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대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대응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내 오염원을 파악하고 격리·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관계로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욱 안전을 기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해당 업무가 분장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증대와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강의실, 기숙사, 체육관 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세척제 등을 상시적으로 비치하여 필요 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루 빨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경제성장률



자료: 블룸버그

한국 수출증가율



자료: 블룸버그

1.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난 기억

아 !!! 너무 너무 안타깝다.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올바른 대비를 했더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목격하면서 나오는 탄식이다. 우리는 멀리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재난을 경험했다. 불과 몇 년 전 2014년 세월호 사태 역시 발생 가능한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선장이 위급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했더라면 또는 해상 인명구조 훈련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조기 투입되었더라면 피워보지도 못한 수 많은 어린 학생의 꽃다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2015년 메르스라는 치명적 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 많은 인명과 재산적 손실 등등. 이러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러나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안전의식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에 안타까운 손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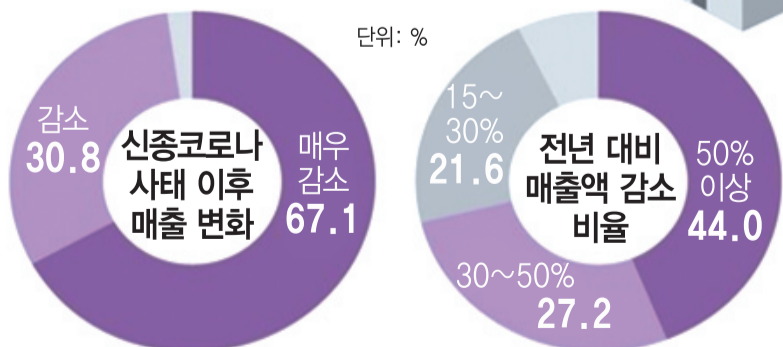
2.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피해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년 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적 재난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으나 2020년 또 다시 커다란 재난에 맞닥뜨렸다. 팬데믹(pandemic·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지대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증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자산의 상징 격인 국제 금값은 온스당 1620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신종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2월 초 소상공인 1,096명 대상 조사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김영은 기자 / 2020021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글: 남기창 교수(경명대학 경영학과, namkc@jj.ac.kr)
편집: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코로나19의 충격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 사태에 우리 사회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한 달 반 이상 연기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개학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법정 수업일 수를 채우려는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학번 신입생들은 매우 이례적인 학번으로 기억될 것이다. 교수들 또한 유례(類例) 없는 학년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감 속 조속한 시일 안에 사태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여 뒤죽박죽 되어버린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금지 또는 자제되는 상황을 맞다보니 소비의 형태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파행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산업조차 멈춰 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자치단체들과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또는 긴급 재난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아무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과 공포심이 전체 사회를 감싸고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

영국의 기든스(Anthony Giddens), 프랑스의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더불어 유럽의 3대 사회학자로 손꼽히는 독일의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규정해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이제 현대사회의 중심적 특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측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전염성이 강하고 계층 차별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 전체가 위험공동체가 된다고 보았다. 처음 중국의 우한시에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위험의 세계화, 전 세계의 위험공동체화 현상을 우리는 여실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평등”의 가치 보다 “안전”이라는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불안이 증가하면 위험의 개인주의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위험은 나를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모든 개혁과 대책은 나를 통해야 한다. 위험사회는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거나 누렸던 현대성(現代性)과는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현대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무튼, 유럽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세계인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은 극히 위축되고 그 결과 경제 또한 급속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대폭 바뀌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달리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생존의 결정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래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인류가 개발한 방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 등의 제도들이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국가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위험 분산을 극대화했던 것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해 공공부조가 개발되었고,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인구사회적 조건을 가진 계층에게 예방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회수당”이다.

이것들을 모두 통틀어 “사회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에 더해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하였다. 사회복지라는 이러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현대사회가 등장하면서 전통사회와 다른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했다. 그 동안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꼽혔던 것들은 질병, 산업재해, 실업, 정년, 출산, 사망 등 개인의 노동능력이나 직업능력을 침해하는 것들이었다. 질병의 경우, 개인의 노동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소득의 감소 내지 중단, 상실로 이어지게 하는 위험이었다.

▼위험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증가

감염병의 위험은 그것으로 인한 경제와 생존의 위험을 초래하여 이중의 위험구조를 이루고 있다. 벡이 말하는 위험은 계급을 넘어서 민주적인 것이지만 경제적 위험은 매우 계급적이고 계층 친화적이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지만, 그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은 중하위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질병의 위험은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보편적 위험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생계와 생활상의 위험은 하위계층에 집중될 위험이 큰 것이다. 즉, 질병 위험의 분배는 보편적이고 민주적이지만 생계 및 생활상의 위험은 역진적이라는 진실이 우리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사람들의 이동 등 일상의 활동을 급속히 축소시켜 경제활동마저 중단 또는 위축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새로운 유형이자 이중적인 사회적 위험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처(New Deal)의 필요

그리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회피 및 바이러스 치료 같은 의학 및 보건에 관한 대책과 아울러 저소득 중소상인이나 취약계층의 손실과 생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 또는 노동과 연계하여 제공되어 왔다. 소득 및 자산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나 급여기준을 정하거나 고용 또는 노동과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 왔다. 이제는 질병(감염병)에 관련해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또는 안전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전 지구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처(New Deal) 양식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곳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기본소득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인지 사회수당인지는 다소 혼선을 빚고 있지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제공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가는 것 같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적용한다면, 그 지역 주민 전원에게 동액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자원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부조”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대상자 기준과 그것의 철저한 적용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또한 재해수당 또는 재난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윤찬영 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소득과 자산 수준 말고 합리적인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가장 어려운 업종을 선정하든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견지해 온 사회보장의 조건과 기준,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방법과 수준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들이 코호트격리를 당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일단,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탈(脫)시설화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실로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그 동안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침해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그 때마다 탈시설화를 대안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시설들도 휴관 등으로 대처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한계를 노출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비용효율성의 결과물이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비용우선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맺는 말

매우 힘들고 위험한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는 긍정의 방향으로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현대사회가 등장했을 때 인류는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력의 감소와 상실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위험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에 대해 인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확인하거나 볼 수 없는 위험들이 평등하게 전염되면서 전체 지구적으로 지배하는 위험사회가 되었다. 위험은 계층을 넘어 민주적이고 보편적으로 관철된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제한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 역진적으로 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편적 위험에 개별적이고도 역진적인 위험이 결합되어 중층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기존의 체제와 방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장치를 개발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글: 윤찬영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jj10321@jj.ac.kr)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 한국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최대 이슈이다. 이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바이러스에 관한 작품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추천 작품에서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우고,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작품을 추천한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추천영화



컨테이션 (Contagion, 2011) –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작된다.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베쓰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편인 토마스는 급히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만, 아내는 결국 사망하게 된다. 그의 아들마저 아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다. 동시에 바이러스는 온 세상에 퍼지면서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바이러스의 출처를 밝히고 백신 개발에 힘쓴다. 이 영화는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을 위한 내용보다는 정부와 질병통제센터의 대응과 대중들의 모습을 주로 전개된다. SNS를 통한 유언비어 확산, 진실을 숨기는 정부, 차안의 붕괴 등의 모습을 보여 준다.

코멘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더욱 재밌고 동시에 화도 날 수 있는 영화이다. 다만, 생존을 위한 액션을 기대하고 본다면 다소 재미없을 수 있다.



연가시 (Deranged, 2012) – 박정우 감독

형사인 재혁은 사건 현장에 나가 하루 만에 뼈째 말라버린 시체를 보게 된다. 얼마 뒤, 똑같은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다. 한 가정의 욕조에서 발견된 시체에서 연가시를 발견하고, 조사를 통해 한 계곡의 변종 연가시의 유충에 인한 감염으로 밝혀진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주인공인 재혁은 자신의 가족들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충제는 소용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 재혁은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코멘트 : 주인공인 재혁의 부성애가 엿보이는 영화였다. 초반의 나쁜 모습과는 달리 위험에 빠진 가족을 살리기 위한 헌신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감기와 같이 드라마, 모험 장르로 액션신은 감기보다 부족하지만, 영화 마지막의 반전이 영화 전체에 영향을 준다. 반전을 위해 끝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감기 (The Flu, 2013) – 김성수 감독

돈을 벌기 위해 컨테이너로 밀입국하는 외국인들. 이들을 운반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모두 죽어있었고, 유일한 생존자 몽싸이가 있었다. 몽싸이 만이라도 운반하기 위해 트럭에 태우면서 전염병은 퍼지게 된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대중들과 병원 의료진들 까지 감염이 되자, 정부는 전염병 발원지인 분당을 폐쇄하기로 한다.

코멘트 : 컨테이션과 다르게 생존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액션신 위주로 흘러간다. 소설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에 고증을 따지기보다는 모험, 액션 장르임을 자각하고 보는 것이 더 즐겁고 편안할 감상이 될 것이다. 한국 영화답게 다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제로 감정 선을 건드린다. 덕분에 정서적인 부분을 즉각 이해할 수 있어 편안하게 볼 수 있던 영화였다.



판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Pandemic: How to prevent an Outbreak)

넷플릭스 시리즈의 다큐멘터리이며, 6부작으로 구성되어있다. 판데믹 단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에 걸맞게 영화는 의료 노동자, 자원봉사자, 과학자, CEO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세계의 독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으로 전개된다. 바이러스를 과학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사회적으로 풀어내며 논점을 끌어낸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예방 체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다.

코멘트 : 코로나19를 생각하며 보기에는 부족했다. 앞서 추천했던 영화들보다는 장르의 한계로 인해 재미를 느낄 수 없지만, 현재 의료계를 진로로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이국종 교수의 영상을 보고 감명 받은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시리즈이다.

신입생, 재학생들이 장학금 받아! : 포인트는 적극적인 자세!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신입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장학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에 기자는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에서 교내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업무 담당 김희수 선생님을 만나 빛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사하기자(201915015@jj.ac.kr)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학교의 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에서 교내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총 60여 종의 교내장학금 혜택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억 원을 약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셈이죠. 전 교생의 70% 정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장학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요. 심지어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성 장학금은 있는지 궁금하다.', '장학제도가 너무 많고 정보가 흩어져 있어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등 여러 이유로 학생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많은 학생에게 우리 학교의 장학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 줌으로써 지금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 많은 학생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금 종류와 각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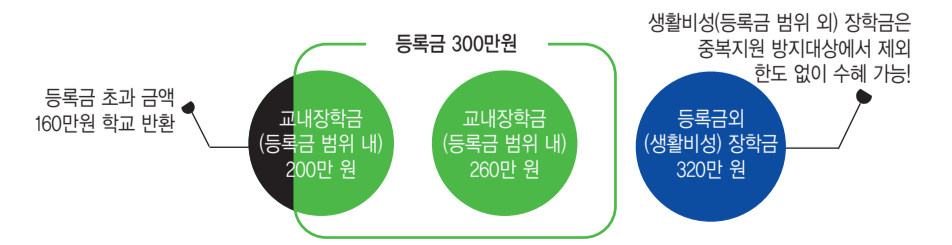
A. 장학금의 유형은 크게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국가장학금**'의 경우 우수 재학생의 70%가 신청할 정도로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백분율 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을 내 수업료가 측정 될 때마다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다만, 장애와 다문화, 만학도 등과 같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참여하고 활동한 만큼 한도 없이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이에요. 마지막으로 '**교외장학금**'은 외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을 뜻합니다. 지급 주체는 사설 장학 재단, 시, 도 단체, 기업 등 종류도 다양하고 기관별로 장학금 성격과 공지 시기도 다르므로 관심이 있는 학생은 수시로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래 장학금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업 장려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모든 장학금의 기본 토대는 학업성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최저 성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수혜 가능 최저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재학생 포털(in STAR)에 등록 해줘야 합니다. 교내장학금은 인스타에 입력한 지급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좌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빠르게 입력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자금 증복지원 방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증복지원 방지 제도란 동일한 학기에 한 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예요. 해당 학기 증복지원을 해소하지 않게 되면 다음 학기에 받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증복지원은 발생하는 즉시 해소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의 경우는 증복지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이므로, 한도 없이 수혜가 가능하답니다.



4.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과 이에 따르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우선 우리 대학에 어떤 종류와 성격의 장학금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성적을 취득해야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교내장학금에는 '성적우수장학금', '복지, 가계곤란장학금', '근로, 봉사장학금', '글로벌도전장학금', '프로그램성 및 기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 산정 후, 석차 순으로 장학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선정된 장학 대상자는 고지서에서 선 검면 처리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장학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후 휴학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휴학을 할 예정이라면 일단 등록해 놓고 휴학을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장학금은 혜택 받은 학기에에만 반도록 되어있어요. 등록을 안 해 두면 장학금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휴학 신청할 때 팝업창에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므로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과)수석	고지서 선검면	수업료의 65%	·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1등 학생에게 지급
		수업료의 30%	·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학부(과)인원을 10명으로 나눈 후, 10명당 1명에게 지급

두 번째는 '**복지, 가계곤란장학금**'이에요. '나눔장학금'과 '장학사정관계' 두 가지 예로 들어 볼 거예요. '나눔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장학금'의 대응 성격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0~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학금 역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평균 2.5점 이상 충족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의 학생이더라도 이 충족조건은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 학교에는 '장학사정관계'라는 특별한 장학제도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계에 위급상황이 생긴 경우 안타깝게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타 장학금을 받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형편 저조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통해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고 원본 대조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증하십니다.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나눔	고지서 선검면	기 초: 국가유형을 제외한 차액 전액 1분위: 수업료의 15% 2분위: 수업료의 10% 3분위: 수업료의 8% 4분위: 수업료의 6% ※ 지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4분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장학사정관계	4월 초, 10월 초	수업료 100만원	· 긴급 가계곤란 상황이 발생한 재사업 부도, 실직, 파산, 장기투병, 사망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이 해당학기 성적탈락, 수혜회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자 · 소득 산정 방식의 문제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학 사각지대에 있는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특수환경지원 장학금	고지서 선검면	4년간 수업료 60% 매학기 학업장려금 50만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기술·행방불명인 자,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고교소 수급 중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이사장장학금	고지서 선검면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0이상인 성적우수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소득분위 0~8분위)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재해장학금	개인통장 지급 및 대출상환	수업료 20%	· 각종 자연 재해로 피해 입은 가정의 자녀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지급방법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장애인지원 장학금	고지서 선검면	수업료 50%	· 부모의 장애등급이 1, 2급인 학생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장애 1급: 수업료 전액 장애 2급 150만원 장애 3급 100만원 장애 4~6급 50만원	· 장애인복지시설규제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6급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가족장학금	개인통장 지급 및 대출상환	2인 재학: 1명의 학부모 수입료의 40%지급 3인 이상 재학: 1명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에게 지급	·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목회자: 100만원 목회자자녀: 50만원	· 목회자: 당교에 등록된 교회의 목회자 또는 목회자 자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세 번 째로 '**근로, 봉사장학금**'이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고려해 학교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한 근로를 수행하거나 교내의 다양한 업무를 하면 일정 금액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해 주는 형식이예요. 사실 교내의 여러 부서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량도 키워두는 생 활비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장학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신청부서
복음	선교봉사처장의 추천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근로성장학금 지급 (재플밴드, 선교봉사)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선교봉사처
알리미	홍보대사 및 웹 서포터즈 및 그 밖의 대학의 알리미 활동에 제공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대외협력홍보실
미디어	학교방송국 · 신문사에서 국장, 기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신문방송국
섬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학생지원실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장애학생지원센터

네 번째는 '**글로벌도전장학금**'입니다. 이름처럼 학생들의 글로벌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이고,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입니다. '해외탐방장학금', '해외어학연수장학금', '해외인턴장학금', '해외유학장학금', '학부특성화장학금'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학생이 국제교류원에서 진행되는 '해외탐방장학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catch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조를 이뤄 탐방하고 싶은 국가를 정한 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에 대한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통해 세계 수준의 능력을 갖춘 연구소나 대학, 정부 기관이나 단체 등을 방문해 체계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매년 3~4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명	지급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신청 및 주관부서
해외어학연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국제교류원
해외인턴십	국가별 차등 지급 (수업료 범위 외)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해외유학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되어 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학부(과)특성화		장교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복수취위	수업료 전액 감면 (수업료 범위 내)	해외대학 복수취위 프로그램 선발자로서 교류대학으로부터 수확허가를 받은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성 및 기타 장학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사실 교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장학금과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프로그램성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사업이 변

하고 있고 부서마다 내용이 달라지며 개수가 약 70~80개 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카운슬링센터에서 운영 중인 '포대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교내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 소외된 학우 등 포대 상담자로서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LAMP ON장학금'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취업지원실에서 운영되는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과 및 직무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그룹화해서 계획성 있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멤버 5~10명에게 매월 2만 원, 1년 8만 원의 취업 활동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융합교육원, 창업지원단, 선교봉사처 등 장학금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명	장학금액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신청부서
R.O.T.C.	수업료 50만원	· 학군당첨이 추천한 R.O.T.C.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학군단
고시	· 1차 합격시 300만원 · 최종 합격시 500만원	·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한 자	학생취업처 (수시 지급)
		·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1차 시험 합격한 자	
다문화	수업료 50만원	· 다문화가정의 이주녀(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신청)
만학도	수업료 30만원	· 만 40세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0이상인자	학생취업처 자체선발
사회봉사	일정액	· 사회봉사센터에서 국내 · 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0이상인 자	사회봉사센터

5.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장학금 제도가 있나요?

A. 취업지원실에서 만든 'Star T 프로그램'이라는 장학 제도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단과대학 학사지도사무실에 제출하면 장학금을 위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1포인트당 3,000원의 'Star T장학금'이 지급되며 장학 내용에 따라 '슈퍼스타 인증'이 되면 해외여행 장학금 150만 원이 지급되기도, 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팝이점스타 프로그램'이라는 장학 제도도 있습니다. '토익, 토플, 토플, JLPT, HSK 등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점수가 향상되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학 중 최대 120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격증 관련 장학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수퍼루키 프로그램'은 취득한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재학 중 최대 90만 원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끝으로 장학금 선발을 위한 꿀팁을 알려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장학금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자주 찾아와 정보를 체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로 삼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아래의 6가지 항목만 잘 지켜보세요.

학생지원실과 소속 단과대학의 문을 자주 두드려라. 일반 공지 및 장학공지를 자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장학금을 찾아보라. 출신 지역과 부모님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지 더블 체크하라. 오늘부터라도 Star T 포인트 적립을 시작하라. 사설 장학재단의 선발 공고는 수시로 공지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라. (본교 홈페이지 대학 생활-장학(교외)안내-정기성 사설 장학재단 목록과 선발 시기 참조) 4년의 대학 생활을 통해 '꿈'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다지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자세를 갖자.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Q&A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친절히 해드리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학생지원실을 직접 찾아오면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전화는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전화연결을 바란다면 Q&A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전화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 부탁드립니다.

A.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고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잘 모를 때, 학생회관 2층 226호인 학생지원실로 찾아오면 언제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있고, 많이 받으면 1년에 1000만 원도 넘게 받아 가는 학생이 있어요. 너도, 나도 장학생은 맞지만 아무나 장학금을 주진 않거든요. 기준이 있고 기준에 충족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해서 하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간단한 것도 많기 때문에 장학금 받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기회가 많아요. 정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장학부서에 직접 오거나 전화를 통해 장학금에 대한 상담드려드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학생지원실은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063)220-2164 / 근로관련장학금: 063)220-2982

교내장학금/학자금대출: 063)220-2167 / 교내장학금 안내 학교 홈페이지- 학교생활- 장학(교내)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교과과정)이 있으며, 이 채플의 교과과정을 5가지의 채플을 개설해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에서는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화요일과 목요일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된다. 28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소그룹 채플은 같은 성품 교육을 진행하지만, 소그룹 형태로 모임이 진행된다.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지역교회 목회자, 교회 리더들이 이 소그룹의 리더로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과 멘토, 멘티로 만나게 된다. 소그룹 리더는 신앙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며, 소그룹 안에서 조별 스페셜 모임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훈련한다. 이 채플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석과 워크북을 기준으로 전주대학교 총장 발행

인증서 발급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채플(구.영성채플)

매주 화요일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대강당)에서 진행되는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이다.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B.M.D(Bible Music Drama)와 매주 채플 밴드가 음악적 요소를 통해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청해 이단 강의, 레크레이션, 문화공연 등으로 채플의 흥미와 공감대를 높이고 있고, 참여도 또한 크다. 학기 말에는 참여도와 감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매주 화요일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 채플은 '지성의 숲'이라는 워크북을 중심으로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한다. 이를 통해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강의 후 진행되는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 체계를 스스로 정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대화한다.

▶소명채플(구.성품채플)

매주 화요일 대학교회에서 진행되는 채플로서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운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뿐 아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이우정(dbwjd8530@jj.ac.kr)

빈 봉지의 행복

-한병수-

길 모퉁이에 낀 리어카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밀가루로 봉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봉어가 없는 봉어빵의 기만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고발하여
지날 때마다 수치심이 화끈거리
출입을 자제해 왔으나
오늘은 냄새가 걸음을 설득했다.

한 봉지의 따뜻한 봉어를 사들고
연구실로 서두른다.
불안감이 뒤를 밟는다.

연구실은 아득한데

아뻘싸, 지인들과 하나 둘 마주친다.
표정이 굳은 봉지
수십에 잠긴 봉어
궁리에 빠진 주인

그 손들이 봉지에서 저녁을 꺼내간다.
끼니의 무게는 줄어들고
공복의 두께는 얇아진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봉어가 다 사라졌다.
냄새만 남은 봉어빵,
그런데 봉지의 빈공간에
생소한 행복의 냄새가 가득하다.

나눌수록 불어나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신비한 행복이다.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증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증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첫째 날을 만드셨다.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으로 칭하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을 때 첫째 날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은 '너 자신을 잘 알라'는 뜻이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잠을 자면서 쉬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자꾸만 욕심을 낸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아무도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혀 무언가에 열중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웬지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 뒤처지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다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할 밤을 거부한다. 밤과 낮의 구별이 없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한다. 이것이 교만이다. 반대로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자신을 깊이 통찰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다. 창조질서에 불순종한 결과, 사람들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체계가 무너짐으로 각종 성인병과 정신질환, 나아가 그 귀한 생명까지 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첫째 날이 열린다.

▼ 하루가 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3, 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기도문

통회(痛悔)의 기도(祈禱)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옛 시구처럼 봄이 왔건만 봄같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쓰러지고 엎어지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온 세상을 지배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공의와 도덕이 무너지며 탐욕과 사치가 자라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교만과 위선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生命)의 근원(根源)이신 하나님,
이번 사태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병상에 누워 있는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영생의 평안과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권능과 자비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승리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무부처장 박기범교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진리의 씨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 대학교회 담임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반도와 온 세계의 상태가 몸살이다. 바이러스 확산의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검역을 확대하고 모임을 통제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의 수위를 강화한다. 지금의 현실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으로 인식한 국가들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결정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군병력 투입까지 고려하는 나라들도 있다. 한편으로 이에 따른 종교의 탄압, 자유의 제한, 사생활 침해, 경제의 위축, 교류의 마비, 감시의 확대, 통제의 강화,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의 대문을 두드린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검증된 사실이다. 여름이면 태풍으로 인해 각 나라에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 광활한 바다의 건강과 해수의 신선도가 유지된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파괴되고, 국토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한국군과 연합군은 80여만명이, 민간인은 100만명 정도가 사망하고, 수십만의 이산가족, 전쟁고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낡은 의식들의 새로운 전환이 범국가적 규모로 일어났다. 자유의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다. 국가가 통째로 바닥에 주저앉는 패망의 잣더미 속에서도 일어나는 법을 체득했다. 가장 급격한 발전이 70년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기독교의 공공성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태풍이다. 세계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전쟁터다. 그런데 기존의 익숙하고 굳어진 생각들의 쇄신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의식의 쾌관한 창고에 구겨넣어 둔 근본적인 질문들과 쌓인 먼지의 무게가 백만톤 되는 소외된 주제들이 인류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인가? 문명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발전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섭리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오늘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은 모든 면에서 본질을 주목하고 회복할 기회이다.

내가 주목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답변이다. "복음은 개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 가정과 사회와 국가, 예술과 학문, 전 우주,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복음이다...이 신앙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때와 장소, 어느 국가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이 신앙은 모든 상황에 적합하며, 근본적인 삶의 모든 형편과 연관되고, 모든 시대에 합당하고 유익하며 모든 환경에 적당하다."

기독교와 교회의 우주적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의 이 고백,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의식이라 생각한다. 내 신앙, 내 축복, 내 가정, 내 교회, 내 교단 중심적인 의식의 이기적인 방파제는 무너져야 한다. 마스크 사재기로 내 주머니만 챙기려는 상업적 이기주의, 가족과 동료를 버려도 내 구원만은 챙기려는 사이비 종교의 이기주의, 내가 책임자로 있는 도나 시에만 보다 많은 재난 기금을 챙기려는 지역적 이기주의 등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낯을 드러낸다. 여기에 교회도 너도나도 유익을 챙기는 이 이기적인 현실의 쓸쓸한 밤상에 손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욕심과 이기적인 행동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지금 교회가 세계라는 이웃에게 제공해야 할 복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실천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내 가정, 내 구역, 내 지역교회, 내 노회, 내 교단, 내 나라라는, 일인칭 단수가 소유격이 된 개념의 테두리를 넘어 땅끝까지, 종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보편교회 의식이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21세기의 바빙크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2000년 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뾰족한 공기를 가르고 십자가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신 예수의 사랑이 기독교의 현주소가 되기를 소원한다.



선교 이야기



이진호 초빙교수
(선교자람실 / jinohyo@jj.ac.kr)

우리는 흔히 공부하여 실력을 키우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직대통령 시절 참모진 중 서울대를 다니며 최연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 계셨습니.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런저런 비리와 연루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실력이 같이라면, 잘 갖추어진 칼집이 더불어 필요합니다. 갖추어진 칼집이 없다면 그 칼은 무기로 전락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사정없이 찌르고 다니며 무차별 피해를 입히는 미친 개와 같아집니다. 그러나 잘 보관할수 있는 칼집이 있다면 완전 달라지겠지요? 사람을 살립니다.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칼집이 바로 성품입니다. 나의 실력을 실력되게 만드는 인간본연의 성품, 성품이 바로 칼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축복의 존재로 빛어졌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야할 인간의 성품이, 사악한 악마를 드러내는 성품으로 전락해 버렸습

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오래참지못함, 살인 등.

전주대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두학기동안 성품채플에 참여합니다. 감사노트를 적어가며 한학기 7주제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훈련합니다. 성품은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관계속에서 나의 성품이 빛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성품좋은 분들이면 나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빛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훈련을 도와줄 최고의 성품리더들 350명이 매학기 전주대학교 새내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의 성품이 최고의 성품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줍니다. 성품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을 잘 이끌어 줄겁니다. 대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할겁니다. 그리고 다름학과 친구들 8명이 한 그룹 되어 가족처럼 한학기를 보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야마 엠티도 갑니다.

성품채플에 참여하여 커리큘럼대로 잘 훈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 1.무엇보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드립니다.
- 2.전주대학교 총장님께서 인증해주신 성품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취업할 때 소중한 스펙이 되는건 당연하겠지요?
- 3.CP포인트도 지급 됩니다. 4.채플장학금도 드리구요. 매학기 2500만원 넘는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도전하고 싶은 마음 생겨 나시죠? 저역시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후, 사회 어디서든 최고의 성품의 실력자 되는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성공이랍니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성품. 성품채플에서 깊은 사랑 나누며 행복한 대학시절 보내시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품, 성품채플



학생지원실
전재홍실장



국제교류원
이범수과장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을 앞 둔 학생들은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대처를 알려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생지원실 전재홍 실장님과 국제교류원 이범수 과장님을 인터뷰했다.

Q. 전주대학교에서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동원하고 있나요?

전재홍 실장님 : 먼저,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전주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책안이 만들어졌고, 비상 보고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지원실에서 전체적인 대처와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 대구지역 등의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종합 정보 페이지를 구성하여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놓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도내 지역 상황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휴관한 상태이고 사태가 호전되기 전에는 개강을 하더라도 휴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각 건물은 출입을 통제 중이며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 물품을 배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국제교류원에서는 학생지원실의 대처에 맞춰가며 유학생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매일 오고 있는 국제교류원에 예방 방역을 진행했으며, 개강 전 학교 전체 건물의 소독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Q.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하여 학교까지 어떻게 오게 되나요?

전재홍 실장님 : 중국에서 입국 예정인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몇 시에 입국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학교 측 대처에 대해 알리기 위함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전주시와 협력하여 곧바로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진행합니다.

이범수 과장님 : 이후 전주대학교 통학버스를 통해 경유지 없이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입국이 제각각이라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사전에 시간을 알려 버스 시간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에서는 코로나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Q. 전주 도착 후 유학생들 관리방법이 따로 있나요?

전재홍 실장님 :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발열 체크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학교에 보고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스타누리에서 집중적으로 보호하며 이곳은 사전 방역 소독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입주 전, 스타누리에 마련된 내부 선별 진료소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별도 검사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가 끝나면 손 소독과 위생상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감염 예방에 대해서도 주의를 줍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상으로 도시락과 방역용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교류원에서 1일 2회 연락을 하여 바이러스 증상이나 특이사항,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입국 전에 설치하도록 한 앱을 통해 자가격리 범위에서 벗어나면 바로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제교류원과 시청에서 매일 격리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앱이 꺼졌을 때에도 연락을 통해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청과 협의한 배달 서비스로 생활용품과 음식들을 전해주고 전북 대학교와 논의한 후 추가로 시청에 요청하여 물품들을 계속 지원하려 합니다. 격리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Q.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나요?

전재홍 실장님 : 입국한 학생들은 그 다음날 국제교류원에 모여서 덕진선별진료소에 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있고 실험일인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이상을 보인 학생은 없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증상이 없다고 해도 자가격리는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중국인 유학생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검체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Q. 자가격리 시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나요?

전재홍 실장님 : 유학생들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개강 직전에 입국한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3월 내 입국을 요청하거나 원격강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방송통신대학의 원격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교과이수조건을 연결해 해당하는 수업을 이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받았기에 학생 뜻에 맞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져 등록기간인 4월 3일을 넘기게 되면 학교 측에서의 대처가 힘들어져 일괄적으로 휴학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범수 과장님 : 격리 기간이 2주나 되기에 스타누리만으론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는 스타빌도 사용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가는 학생들과 새롭게 들어오게 된 학생들이 같은 시설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스타누리와 스타빌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분 짓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의 룸메이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경우 감염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도 같이 자가격리를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Q. 자가격리 불이행 시 처벌되나요?

전재홍 실장님 : 자가격리를 어길 시 처벌되는 경우는 의심증상자 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입국해 왔다고 해서 자가격리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협조에 기대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불이행한 학생은 없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원룸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들의 룸메이트들이 접촉 후 외부로 나가는 일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룸메이트 학생들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격리 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국제교류원 학생들이 생활용품들을 대신 구매해주며 자체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Q. 자가격리 진행 현황이 궁금해요!

전재홍 실장님 : 현재 중국인 유학생 359명이 입국한 상태이며, 이중 자가격리 해지 232명, 자가격리 모니터링 대상이 127명입니다.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와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자가격리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모두 권고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중국인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주대학교 유학생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 입국부터 취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방역용품도 지급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주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며 아직 큰 불만을 토로한 학생은 없습니다.

Q. 학교행사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전재홍 실장님 : 정부에서 5인 이상의 집체교육을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방침도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취소되었고 다가올 봄 축제 기간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취소할 예정입니다. 학과 멘토링 등의 몇몇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 국제교류원에서의 교육들은 진행되지만 자체 행사 등은 심의 중입니다.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재홍 실장님 : 본교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께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대처한 방법들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하셔서 13일 등교 때는 아픈 사람 하나 없이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으면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건강해야 등교 후에도 감염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에 건강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과장님 : 저희는 학생들의 걱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보호 중입니다.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같이 등교하게 되는 날 캠페인을 통해 서로 상생 개념의 캠페인을 실행할 예정이니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유학생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교수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최현욱 교수
(의과학대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지 벌써 50일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가 밀폐된 실내의 밀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에 대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알코올 함유 손 소독제 사용,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여기에 더해 행사 모임 참여 자제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감염 방지를 위해 2m 이상의 거리두기, 악수는 팔꿈치로 대신하기 등이 권고된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는 2m 이상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2m 이상 떨어져 머무르라는 말이다. 슬프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까이에서 대화했던 인간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기업들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도 예배와 법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집회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 줄 식사와 원격영상회의, 모바일 활용 교육 등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양한 거리두기 현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코인 노래 연습장이나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주변 pc방, 카페 등은 영업장 자체 소독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강제로 부여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낯설지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사람들과 가깝게 어울리기 좋아하며 모임과 회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일 수도 있으나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친구 사이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니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래야 가까운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단, 마음의 거리까지 너무 멀리 두면 삶이 각박해질 수 있으니 심리적 거리만큼은 가까이 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나 자신과의 거리를 가까이하러 스스로를 보듬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자칼럼

익명성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들



유성훈 기자

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지만 우리나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수면에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기록은 역대 최고수치이다. 그렇다면 n번방은 무엇인가?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되고 있는 엽기적인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약 7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일명 '박사'라 불리는 조주빈이다. n번방의 시작은 '박사'가 아닌 '갓갓'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며, 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보기만 한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지이다.

우선, 돈을 내고 피해자들이 특정행위를 하는 영상을 요구했다면 성 착취 동영상 '제작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유포한 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별다른 행위 없이 텔레그램방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텔레그램 앱에는 '재생 영상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휴대전화에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얼마나 발견되느냐가 처벌대상자와 수위를 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들은 범산의 일각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가 생겨나고 있고 수백 수 천명이 새로 유입되고 있다. 인간이라면 인상부터 찡그리게 될 잔인한 n번방 사건. 필자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도, 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지만 이런 사건이 생겨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 여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며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제도는 비윤리적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 사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엄벌주의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형벌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란다.

사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전주대학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내에서 문제로 대두되기 전 벌써 두 달이 넘었으며, 이제는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로 전환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학당국과 전주대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한다. 학우들을 포함한 전주대 구성원 모두가 이 노력에 동참해야 지금의 위기를 더욱 빠르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은 성급하게 긴장을 풀지 않고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학당국이 이런 대유행병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그 동안의 대응 과정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학우들의 입장에서 수업 관련 논의와 공지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느끼거나 온라인 원격강의가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급박하게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우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주대 구성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각 학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려 교수님과 조교선생님들이 애쓰고 있고, 교내에서는 직원선생님들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방역과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다. 기숙사에서는 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화원분들은 교내의 청결과 방역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대학을 위해 보이지 않게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국외 감염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긴장을 풀고 각종 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회적 만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고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대학당국은 학우들을 감염과 불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준비해 모든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학우들은 대학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작스럽게 우리 전주대학교에 닥친 국가사회적인 위기를 대학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극복하는 지혜를 나누기를 기원한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이호인 주간 김병기 편집장 김지은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Cherry Blossoms on Campus

By Prof. Marli van Vuuren



Which Is More Dangerous, Disease or Xenophobia?

by Kim Jieun, Reporter

The world is in a state of panic as Corona 19, officially called COVID-19, is quick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The Corona19 virus disease first broke out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In less than three months, this disease attacked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 people and killed about 5% of them.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upgraded its Corona19 crisis alert to the "serious level," which is the highest, timely and with foresight. The mortality rate of Corona19 is not especially high compared to other Coronavirus diseases such a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However, it is more infectious than other viruses and more fatal to the weak and the elderly.

What is more, anxiety and fear caused by the spread of Corona19 are crossing the borderlines. The cases of indiscriminate abhorrence are too conspicuous to overlook. Starting with a wary eye on those who recently visited Wuhan, which has been cited as the origin of the new virus, several countries started to impose entry bans on Chinese nationals. Now almost all countries have grounded airplanes and closed harbors. In the aftermath, anxiety and will-to-survive began to degenerate into a profound distrust of all the others, and then into xenophobia.

From the beginning, almost all the Korean reporters were eager to trace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rona19 and died from it. The media exploited anxiety and fear of the epidemic that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On the day the first patient was confirmed to have been infected with Corona19 in Geumcheon-gu, Seoul, some newspaper headlines pointed out the fact that Geumcheon-gu is a residential area densely populated with Chinese

people. In fact, those Chinese people had nothing to do with the outbreak. It may be useful for some agitators to bring about abomination against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If there is a crisis of survival in a society, the crowd tends to find a scapegoat to vent their anger. Instead of giving facts and safe advice, the media repeatedly reproduced the biased view of foreigners, especially Chinese people. They were indeed making a stereotype for people to be disgusted with and to target easily. As they may have hoped, hatred erupted in various forms in some parts of our society. On online news comments and SNS messages, there were an increasing number of postings that put the blame on the government policy that did not forbid Chinese citizens coming to Korea. A restaurant owner even posted "No Chinese" signs on his windows, and more recently, there appeared petitions asking for an entry ban on Chinese nationals. Now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all suffering severely from the Corona19 disease. No tourists are hanging out leisurely in a foreign country. Who's to blame now? Korean citizens who temporarily stayed out of the country for business or education and are coming back to their homes?

Excessive fear has created another epidemic in our society: hatred of the others. Finding a scapegoat for catharsis does not help to overcome a crisis. Enough, stop spreading the hatred! We must not commit the folly of ostracizing someone by targeting them. We now need to stand up together and overcome the crisis. It's time that we show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Don't forget: Man and woman are always individuals. Life is too short and precious to hate anyone.

Useful Tips for Campus Newbies

by Yim Jeong Hun, Reporter

New students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college life when they come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They don't know what programs JJU prepares for them and often fail to notice good opportunities. I will introduce some useful tips for them on campus. Though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from an COVID-19, it is time to start a new semester and overcome nervousness.

First, there are Star Lectures which started their first lecture in 2012. The University invites various "star" lecturers from schools and industries. Last year, among the invited were Dr. Ihn Yohan,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Severance Hospital, and Mr. Han Myeong-soo, Creative Director of the Baemin delivery app service. While listening to a lecture, you may bring up new ideas. It can be helpful for those who need to learn how to be creative and practical in the ever-changing world. It will also give you start-up mileage if you are careful in your gathering.

Second, there are various Supporter Activities: LINC+ Business Supporter, CTC Supporter for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Extra-curricular Supporter, and so on. If you work as a Supporter, you can create close contacts with a variety of people and even get special scholarships. So let's give it a try.

Third, there are various clubs: a photo club, a basketball club, a Christianity society, a music club, an academic club, a volunteer activity club, and so on. Members can hang out together and spend time doing whatever they like to do.

Fourth, there are festivals, such as sports competitions, Spring Festival, Festival of the Central Club Federation, Autumn Festival, and college festivals held by each college. There is a photo zone where you can fix memories of the festival. There are also various food stalls and prize draw events. At the festival, students can see celebrities and listen to their songs from just a few steps away. You can also enjoy a festival with students from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You can fill up your energy by taking a short break from your busy college life.

Fifth, there are various events. Student who pay their union membership fees can participate in events and enjoy services that each college union provides for them. For example, on a Coming-of-Age Day, they give perfume through a draw. College Student Unions sometimes give good products as gifts for a Halloween party and/or quiz events

There are other programs in addition to the ones I mentioned above. I hope you will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so that you can get along with other students and seize good opportunities without missing them.

新冠病毒或引发一场新工业革命

英国《泰晤士报》网站3月5日发表题为《新冠病毒能够引发一场新工业革命》的文章指出，当供应链崩溃、家家户户被隔离时，第四次工业革命看上去更具吸引力了。当现金正在传播病毒时，使用电子货币似乎要明智得多。当出行和人员聚集存在风险时，远程办公可能成为常态，而非反常现象。这一切都将有助于减少碳排放，这是一个额外的好处。文章摘编如下：



一方面，这将造成巨大的破坏，并可能导致生活成本增加。然而，还有一线希望。如果这是人们接受全球化的一种新模式所需的推动力呢？当今经济的肮脏秘密在于，它实际上是昨天的技术的产物：快速响应供应链的基础是软件和互联网连接。船舶和飞机的最终能源是矿物燃料。今天的新技术—3D打印、人工智能和机器人技术—能够带来一种形式截然不同的全球化。综合这些新技术就能想象，正如经济学家理查德·鲍德温所说的，伦敦的酒店房间由身处波兰的清洁工控制的机器人打扫，或美国得克萨斯州的草坪由身处墨西哥的园丁操纵的机器人修剪。然而，尽管宣传势头很猛，但由这些技术推动的工业革命离我们还很遥远。许多办公室和上世纪50年代的办公室没有太大不同；制造业的大部分环节仍以工厂和供应链为中心；3D打印令助听器行业突飞猛进，但在制造业的大部分领域仍无足轻重。但新冠病毒是能迫使企业实现它们迄今因过于紧张而无法实现的飞跃的冲击之一。当供应链崩溃、家家户户被隔离时，第四次工业革命（或者你想怎么称呼它都行）看上去更具吸引力了。当现金正在传播病毒时，使用电子货币似乎要明智得多。当出行和人员聚集存在风险时，远程办公可能成为常态，而非反常现象。这一切都将有助于减少碳排放，这是一个额外的好处。当然，在新冠肺炎疫情结束后，生活很可能将恢复正常。但这种疾病的后果之一可能是，迫使人们认真思考和审视我们管理世界的方式，并改变它(转自参考消息)。



对资本主义来说，大多数衰退都是达尔文式的时刻：过时、动作迟缓、未能与时俱进的企业被淘汰；具有破坏性的竞争对手从富于创造性的毁灭火焰中走来。困难令人专注，企业找到了更有效的经营方式。新兴经济的生产力理应高于其替代的经济。然而，在这场危机中，情况可能正好相反。企业原本发现，制造产品最高效亦即最廉价的方式是，利用横跨全球的供应链寻找廉价劳动力。如果在世界的另一端能以较少的成本制造某种产品，那就这么做吧。然而，新冠病毒可能会限制人员和货物的自由流动，它将使企业无法利用这一最廉价的途径。企业将不得不洲际供应链是否有意义进行深入思考。一些企业已开始将生产活动迁回国内，并选择使用国产零部件。

全州大学将发行外国留学生指导手册

(通过教务制度、奖学制度、签证、大学生活的指南帮助稳定的留学生活)

为了让外国留学生快速适应韩国的留学生活，全州大学正通过发行指导手册、新生培训、牵线韩国亲人(host family)、一对一学习指导等多种方法援助外国留学生的留学生活。



今年发行的“2020外国留学生指导手册”修订版不仅详细介绍了教务制度、奖学制度、签证、大学生活等学校生活，还介绍了各种出入境管理局事务，及平时生活中经常遇到的问题的解决办法。为了帮助留学生的理解用很多图片进行了详细解说。这个指导手册成为留学生理解韩国生活的必读书，也成为国内外其他教育机关争相引进学习的范例。这个指导手册的最大特点是，它没有停留在学校生活的简单说明，而是将外国留学生感到困难和吃力的部分逐一找出来，甚至连校外生活中需要了解的部分和可能遇到的问题都一一进行了调查，通过现场实际照片和详细的文字介绍了解决方法。最

新版的指导手册总共80页(韩文)，将翻译成中文、越南语、蒙古语、英语等。一直负责发行指导手册的国际交流院朴奎教授说：“为了避免以单纯的文字只传递情报的弊病，也为了帮助留学生快速适应韩国生活，这次指导手册选择了以图片和照片为主的方法，因此付出了很多时间和精力，也遇到了很多困难。但是想到这本指导手册不仅帮助留学生校园里的学习生活，还将帮助在韩国的社会生活就感到很欣慰，也感到很有意义。”从2016年开始进行的外国留学生一对一学习指导活动，到上学期已经有120名参加。在韩国学生中也很受欢迎。2020年第一学期也准备继续进行。这次学习指导活动为专业学习指导，是为那些学习成绩不好的学生特意准备的。如果通过一学期的学习指导成绩提高的话，负责指导的留学生将获得至多50万韩元的“提高成绩奖学金”。另外由学校教授、职员、校友和其他韩国人组成的韩国亲人(host)与外国留学生一对一的连结韩国亲人(Host Family)活动为留学生提供访问韩国家庭聚会，以及与韩国亲人参加其他多种聚会的机会，让留学生体会韩国文化。也可以通过与韩国亲人的沟通，帮助留学生在韩国的学习生活和日常生活。国际交流院柳寅坪院长说：“我们全州大学连续6年被教育部、法务部评为‘教育国际化力量认证大学’，是一个很优秀的大学。近年来与海外大学交流的增加，在我们学校留学的外国留学生已有1600多名，而且留学生的人数将越来越多。希望在全州大学和韩国的生活成为他们人生中美好的回忆，也希望他们在这里多学点知识和智慧。”2020外国留学生指导手册(大学本科留学生用)将在对面授课时发行，并与留学生见面(实习记者)。

PHÁT HÀNH SỔ TAY HƯỚNG DẪN (GUIDEBOOK) CHO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du học thông qua Chương trình Đại học, Chế độ học bổng, Thị thực (Visa) và cuộc sống sinh viên)



Đại học Jeonju xuất bản cuốn sổ tay để giúp du học sinh nhanh chóng thích nghi với cuộc sống học đường ở Hàn Quốc. Nhà trường lên kế hoạch hỗ trợ du học sinh thông qua các chương trình khác nhau như: Orientation (Định hướng), Host Family, Mentoring (Chương trình kèm cặp). Năm nay, nhà trường sẽ cho ra mắt ấn bản thứ 2 "Sổ tay hướng dẫn Du học sinh

2020" dành cho sinh viên đại học bao gồm hướng dẫn cuộc sống sinh viên như chương trình đại học, chế độ học bổng, visa... cũng như đăng ký giải quyết di trú và những câu hỏi thường gặp được trình bày chi tiết qua nội dung và hình ảnh dễ hiểu. Cuốn sổ tay này trở nên cần thiết cho sinh viên nước ngoài để hiểu cuộc sống của Hàn Quốc và đã trở thành một trường hợp chuẩn cho các tổ chức giáo dục khác trong và ngoài nước. Điểm đặc biệt lớn nhất của cuốn sổ tay này là không chỉ giải thích đơn giản về cuộc sống học đường mà cả những khó khăn và trở ngại mà du học sinh có thể sẽ gặp phải cũng sẽ được giới thiệu thông qua các hình ảnh thực tế. Phiên bản mới nhất được xuất bản với 80 trang dưới các ngôn ngữ Trung, Việt, Mông Cổ và Anh. Giáo sư Park Sangkyu đã nói về cuốn sổ tay này "Mặc dù việc làm ra một cuốn sổ tay với sự chi tiết về hình ảnh để du học sinh xem và nhanh chóng thích ứng với sinh hoạt ở Hàn Quốc khó hơn so với việc có

được thông tin qua những câu chữ đơn giản, nhưng tôi cảm thấy được tác dụng của việc các bạn du học sinh có cuốn sổ tay này hoàn toàn tự tin với cuộc sống học đường". Chương trình tư vấn (Mentoring) dành cho du học sinh bắt đầu từ năm 2016, đã có 120 học sinh tham gia chỉ trong học kỳ trước. Chương trình cũng được quan tâm bởi nhiều học sinh Hàn Quốc. Và học kỳ 1 năm 2020 cũng đang được chuẩn bị tiến hành. Chương trình lần này được đặc biệt chuẩn bị cho các học sinh có thành tích học tập thấp, thông qua hoạt động tư vấn đào tạo trong vòng 1 học kỳ, nếu thành tích được cải thiện sẽ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lên tới 500,000 won. Bên cạnh đó, chương trình Host Family kết nối 1-1 giữa du học sinh và các giáo sư, nhân viên.. trong trường tạo cơ hội cho sinh viên quốc tế trải nghiệm văn hóa gia đình Hàn Quốc thông qua các buổi gặp mặt hay các sự kiện gia đình khác nhau. Và cung

cấp hỗ trợ thông qua tư vấn những khó khăn trong cuộc sống học đường hoặc cuộc sống hàng ngày. Viện trưởng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Ryu Inpyeong "Đại học Jeonju của chúng ta là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xuất sắc đã được Bộ Giáo dục và Bộ Tư pháp chọn là "Trường đại học chứng nhận năng lực quốc tế hóa giáo dục" trong 6 năm liên tiếp. Có hơn 1600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qua các trao đổi mở rộng vớ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ở nước ngoài và tôi hy vọng con số này còn tiếp tục tăng. Thông qua các chương trình này, du học sinh sẽ có thêm nhiều thông tin về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ũng như cuộc số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Sổ tay hướng dẫn cho du học sinh 2020 (sinh viên đại học) dự kiến sẽ được phát hành và tới tay các bạn du học sinh trong thời gian tới.

2020 StarT Program



StarT Program (Superstar Training Program)이란?

“Superstar”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도전정신(Challenge), 능력개발(Competence), 공동체 의식(Community)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내·외 활동의 참여 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인증 포인트(Certification Point: CP)와 장학 포인트(Scholarship Point: S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산 점수에 따라 총장 인증서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한다.

부서: 전주대학교 진로개발센터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도전 정신 함양 활동	해외체험학습	• 해외학습활동 참가 - 세미나, 워크샵, 포럼, 학술회의 등 • 해외문화예술체험 활동	비학점 : 시간당1점 1일 10점 1일당 10점 최대CP 50점	연수활동 보고서 결과보고서	CP	
	도전 해외 문화 탐방	• 팀별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공모 트랙 (Catch the World)	응모10점(선발된 자 제외) 선발 시 지역별 차등지급 결과보고서 평가(10-30점)	신청서심사 결과보고서	100 CP 경비지급 CP	
	교양 증진 활동	• 문화예술체험 활동 • 독서 활동(대학관장도서) • 신문, 잡지, 기관소식지 등 게재 활동 • 블로그 활동 • YouTube 활동	건당 5점 권당 3점 건당 10점 10건 이상 등록(학기당 10점) 10건 이상 등록(학기당 10점)	최대CP 20점 최대CP 50점 최대CP 50점 최대CP 30점 최대CP 30점	결과보고서 온스타 입력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100 CP
	취업 체험 학습	• 온스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력 • 온스타 성격 및 적성검사 결과 입력 • 각종 취업교육 프로그램 참가	클리어 후 제출(학기당 1회, 10점) 검사당 5점 비학점 : 시간당1점	최대CP 30점 최대CP 20점 결과보고서	저장 후 출력 제출 결과보고서	100 CP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영성개발 활동	• 신앙 봉사 활동 • 신앙 수련회 참가 • 장, 단기 선교 활동	해외 1일 10점/국내 1일 5점/시간당 1점	선교지원실에서 인준하고 CA실에 제출	50
	공동체인성 증진활동	• 학부, 전공 단위의 행사 참가 • 각종 동아리 활동(전공동아리, 교내 신문방송 포함) • 소집단 상담, 인성 관련 특강 및 워크숍 참가	1일 5점/1학기 20점/시간당 1점	학부 및 전공에서 확인 후 명단 제출	50 CP
리더십 개발 활동	리더십 개발 활동	• 총학생회 임원 활동(총학생회 및 산하기구 간부 활동) • 단과대학 및 학과 임원 활동 • 멘토링 활동(멘토-멘티), (개강 후 1개월 내 CA실 신청) •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1학기 20점 1일당 5점/시간당 1점	확인서 확인서	50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도전 정신 함양 활동	개인 및 팀 프로젝트	• 교내, 외 경진대회 참가 및 입상 • 발명특허(특허등록,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교내 경진대회 입상 10점 (단과대학입상자5점) 교내, 외 경진대회 참가 10점 (단과대학경진대회참가자 제외) 건당 30-100점 특허출원 건당 50점	참가확인 등록증, 출원증	100 SP CP CP
	특기 개발 활동	• 각종 특기개발 활동 수상 • 일정 공인 급수 취득 • 각종 취미관련 활동 수료 • 영화 및 TV 방영 활동	전국규모 30점, 민간 및 교내규모 10점 종목/급수당 10-30점 1개당 20점 수료 시 20점 건당 20점	수상기록 공인급수증 자격증, 수료증 결과보고서	50 CP CP
	집단 체험 활동	• 훈련활동참가(국토순례, 극기체험, 병영체험 등)	1일 5점	참가확인서, 결과보고서	50 CP
	건강 관리 활동	• 금연 활동 프로그램 (개강 후 1개월 내 보건소 선착순 신청) • 다이어트 프로그램(개강 후 1개월 내 CA실 신청) • 마라톤 • 철인 3종 경기(수영, 마라톤, 사이클 완주 시 인정) •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4개월 후 달성 달성 후 2개월 유지 최대SP 50점 체중10%감량10점 1개월 유지 20점/3개월 유지 30점 10km-20점/20km-40점/ 42.195km-100점 완주 시 최대CP 150점 40km-30점/20km-10점 최대CP 100점	참가확인서, 결과보고서	150 SP CP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사회봉사	• 복지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및 행사지원 등 • 민원안내, 문서정리, 도서정리 등 • 호스피스, 접수, 전화상담 등 • 캠페인 안내, 접수, 전화상담 등	학점당 10점(2014학번까지만 해당) 국의 1일당 10점/국내 1일당 5점/ 시간당 1점(1일최대8점)		참여신청서 및 기관확인서 150 CP
	학교봉사	• 초·중·고등학교에서 봉사 • 재단 시 농어촌 일손 돕기 등			
	헌혈 및 장기기증	• 헌혈 및 장기기증	헌혈 20점/성분헌혈 10점/ 장기기증 100점/장기기증서작성 20점		
	교내 봉사	• 대학 내 자원봉사, 행사보조 등	1일당 5점/시간당 1점 최대CP 30점		
기부 활동	복지단체 기부금	• 금전기부활동	1년 10점	최대CP 30점	
	복지단체 물품기부	• 물품기부활동			
	헌옷기부활동	• 헌옷기부활동	개/3점		

* 수퍼스타 필수 요건 : CP+SP 50점 이상(도전정신, 능력개발, 공동체의식 각 100점 이상 취득), 사회봉사 20시간, 취업하이패스 프로그램 15시간, 권장도서 5권

Rising Star Program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활동	• 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의 점수 획득 시 등급별 점수 부여 • TOEIC, TOEFL, TEPS, IELTS, JPT, JLPT, HSK, CPT 등 외국어 시험 점수 제출 • 매일점수, 매일지급 (시험 성적 등급 향상 시)	등급별 점수 부여 (1-8등급)	시험 성적표	400 RP

Super Rookie Program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인정방법				
	구분	활동사항	인정기준	평가방법	최대점수 CP/SP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활동	• 각종 전공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인정 - 등급에 따라 국제공인, 기사(4년제), 신입기사(2년제), 기능사(민간포함), 기타 등으로 분류 차등 점수 인정 - 구체적인 자격증의 분류 및 점수 인정은 StarT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자격증 취득 트랙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트랙을 신청하고 목표 등급 달성 시 가산점 부여	1등급: 100점 2등급: 50점 3등급: 30점 4등급: 10점 1등급: 10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4등급: 1점	자격증사본 트랙신청서	300 SRP

2020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신입국원 모집

모집기간 : 3월 23일(월) ~ 4월 8일 (수) 오후6시

모집부문

- 기획부 : 프로그램 기획 및 총괄, 방송기자(라디오, 영상뉴스)
- 기술부 : 영상 촬영, 라디오 엔지니어
- 편집부 : 영상 편집

지원 자격

전주대학교 20학년 신입생

지원 방법

교육방송국(학생회관 322호) 방문 접수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메일(zpdpd1@jj.ac.kr) 접수

문의

국장 김현준(010-7599-8408)
운영부장 손민기(010-9443-9676)

활동 혜택

- 정국원 선발 시 교내 미디어 장학금 지급
- 부서별 전문화 교육 진행

기획부

기획과 총괄을 맡아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창의력 향상.

기술부

카메라, 캠코더 및 전문 촬영 장비 사용방법 및 응용능력 교육, 라디오 방송 기술 능력 향상

편집부

영상 편집 및 제작 교육, 최신 편집, 제작 툴 무료 사용 가능.

활동 사항

- 점심 라디오 생방송 및 아침, 저녁 음악방송 진행
- 교내외 소식 및 학교 행사, 뉴스 콘텐츠 제작
- 대학생 예능 콘텐츠 제작

전주대신문 신입기자 모집

2020. 03. 23 - 2020. 04. 08



FIND YOUR DREAM AT JEONJU UNIVERSITY

- | | | | | |
|---|---|---|---|-----------------------------------|
| 모 | 집 | 부 | 문 | 취재기자(기사작성) |
| 지 | 원 | 자 | 격 | 편집기자(카드 뉴스 작성, 신문 디자인) |
| 지 | 원 | 절 | 차 | 전주대학교 재학생 |
| 활 | 동 | 혜 | 택 | 신문사(학생회관 320호) 방문
[지원서 작성->면접] |
| | | | | 원고료 및 장학금 지급 |